

‘사상 첫 올림픽 본선 가자’



대한민국 여자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최종예선 중국과의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19일 강진종합운동장 내 영랑구장에서 하체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 축구 대표팀, 강진서 도쿄올림픽 최종예선 PO 담금질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이 다음 달 열리는 중국과 도쿄올림픽 최종예선 플레이오프(PO)에 대비해 마지막 담금질에 돌입했다.

풀린 벨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19일 강진종합운동장에서 소집 훈련

을 시작했다. 대표팀이 모인 건 지난해 11월 부산 훈련 뒤 약 2개월 만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제약이 많은 상황이지만, 벨 감독은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 선수들의 동기부여 차원 우려에 대해 벨 감독은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우리의 목표는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준비되는 것”이라며 “지난해 말 두 차례 소집 훈련에서 선수들이 고강도로, 열심히 훈련해왔다. 이번 훈련에서는 다음 주 초까지 선수들 몸 상태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PO는 1차전은 2월19일 오후 8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2차전은 2월24일 오후 8시30분 중국 쑤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에서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중국을 넘으면 한국 여자축구는 사상 첫 올림픽 본선 진출의 새 역사를 쓴다. 중요한 일전을 앞둔 대표팀은 PO까지 한 달간 조지력을 다진다. /연합뉴스

대한체육회 2021년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사업 공모

광주시체육회 ‘전국 최고’

국비 6억5천만원 확보

광주시체육회가 코로나19 침체된 지역 체육계에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한 지역의 우수선수 발굴과 선수 저변 확대 등 지역의 선순환 시스템 구조의 선수 육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체육회는 19일 “대한체육회의 2021년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전문선수반 지속지원) 사업에 선정돼 전국 최고인 총 6억5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됐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2013-2017년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된 지역 스포츠클럽 중 기금 사업이 종료된 클럽을 대상으로 펼치고 있다. 전국 156개 스포츠클럽 중 지역 선수 확보와 대회 출전 등 클럽 활성화 등을 심사한 결과, 광주는 5개 스포츠클럽 14개 종목이 선정돼 육성 종목별

예산을 지원받게 됐다.

공모대상이 되는 빛고을스포츠클럽, 송원스포츠클럽, 광주거점스포츠클럽, 광산남부스포츠클럽, 동구스포츠클럽에서 신청해 우수 4개 종목, 심화 7개 종목, 기본 3개 종목이 공모에 선정돼 지속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눈앞의 성과보다는 역약한 종목의 선수 저변을 강화해 나가고 학교체육과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연계육성, 나아가 은퇴 선수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은 “스포츠 클럽을 통해 선수 저변을 확대하고 학교와의 연계를 강화해 선진형 스포츠 국가로 발돋움하는 기틀을 마련해 광주체육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 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체육회 ‘전국 최다’

9개 클럽·17개 종목 선정

전남도체육회가 대한체육회의 2021년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 최다인 9개 클럽·17개 종목이 선정됐다.

전남도체육회는 19일 “대한체육회의 2021년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사업 공모에서 곡성(복싱), 광양(야구·아이스하키·축구), 여수(유도·요트), 나주(농구), 세한(농구·야구·태권도), 순천(배드민턴, 탁구, 축구), 강진(수영), 영광(수영), 진도(탁구) 등 9개 클럽·17개 종목이 선정돼 6억2천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체육회는 2021년 연초부터 고액의 공모 선정 거양의 실적을, 지원대상이 된 스포츠클럽들로서는 선수 육성을 통한 우수선수 발굴 및

지역 내 종목 선수저변 확대에 큰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사업 공모는 기금 지원이 종료된 70개 클럽(2013-2018년 선정)을 대상으로 선수반 지속 지원, 해체 학교운동부 흡수 클럽 지속 지원, 선수반 신규 운영, 해체학교운동부 흡수 클럽 신규 운영 등 3개 유형으로 진행됐다.

김재무 전남도체육회장은 “기금 지원이 종료된 9개 스포츠클럽의 전문선수반 운영비 확보는 향후 스포츠클럽의 학교체육-전문체육-생활체육으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체육 선진화 기반구축에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됐다”며 “앞으로 공공스포츠클럽을 통해 우리 지역 꿈나무 체육인들의 육성·성장과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중 기자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 함평 출신 정진완 이천훈련원장

정진완(55)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장이 장애인체육회 수장 자리에 올랐다.

정진완 후보는 19일 열린 제5대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에서 총 유효 투표수 67표 중 41표를 얻어 이명호(64·25표) 후보, 안태성(59·1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함평 출신인 정 당선인은 개표 후 취재진과 만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훈련이 중단되면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수당이 끊겼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면서 선수들이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유형의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큰 목표”라며 “스포츠를 통해 장애인



정진완 당선인이 19일 열린 회장 선거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제공>

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정 당선인은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부장을 역임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장을 거쳤다. /연합뉴스

2021 K리그1, U-22 의무 출전 인원 조정안 의결

U-22 2명 그라운드 밟아야 새로 도입된 ‘5명 교체’ 가능

2021시즌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에서는 22세 이하(U-22) 선수 2명이 그라운드를 밟는 팀만 새로 도입된 5명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8일 2021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어 K리그1 교체선수 수 확대에 따른 U-22 의무 출전 인원 조정안을 의결했다.

프로연맹은 선수 육성을 위해 U-22 선수 의무 출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U-22 선수 중 한 명이 선발 출전해야 하며, 총 2명이 엔트리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를 충족하지 않는 엔트리를 제출하는 팀은 해당 경기 교체 카드가 3장에서 2장으로 줄어드는 강한 페널티를 받는다.

그러나 올 시즌부터 K리그1에 ‘5명 교체’가 도입되면서 U-22 의무 출전 제도는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놓였다.

U-22 선수를 포함하지 않아 페널티를 받아도 교체 카드가 4장이 나 되기 때문에 각 구단이 U-22의

무 출전 제도를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프로연맹은 U-22 선수 한 명만 선발 출전한 경우 교체 대기 중인 U-22 선수가 교체 투입돼야 교체 카드 5장을 다 쓸 수 있게 규정을 보완했다.

즉,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한 U-22 선수가 교체 투입되지 않으면 3명까지만 교체할 수 있다.

U-22 선수 1명이 선발 출전했거나 전체 엔트리에 U-22 선수가 2명 이상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3명까지만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U-22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으면 교체 카드는 2장만 주기로 했다.

엔트리에 U-22 선수가 1명만 포함될 경우 엔트리 인원이 17명, 1명도 포함되지 않을 경우 엔트리 인원이 16명으로 줄어드는 것은 기존과 같다.

U-22 선수가 각급 대표팀에 소집될 경우 소집된 인원만큼 선발 출전 의무와 엔트리 포함 의무가 면제되는 것도 그대로다. /연합뉴스



‘행정가’ 박지성…K리그 전북 합류

프로축구 K리그1 ‘다편당 챔피언’ 전북 현대가 한국 축구의 ‘영원한 캡틴’ 박지성(40)을 품었다.

전북은 박지성을 구단에 조인자 역할을 할 ‘클럽 어드바이저(이하 위원)’로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박지성 위원은 K리그와 처음으로 인연을 맺었다. 박 위원은 현역 시절 K리그에서 뛰지 않고 유럽과 일본 무대에서만 뛰었다.

박 위원은 전북 프로 선수와 유소년 선수 선발, 육성, 스카우트, 훈련 시스템 등과 관련해 전북에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박 위원은 영국과 한국을 오가며 비상근으로 조언자 역할을 한다.

박 위원은 2017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대한축구협회(KFA) 유소년력본부



K리그 전북 ‘어드바이저’로 위촉된 박지성. <전북 현대 제공>

장으로 일할 때도 비상근으로 일했다.

전북은 “박 위원은 프로와 유소년팀의 선수 이적 및 영입과 관련해 일정 부분 ‘테크니컬 디렉터(기술 이사)’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스포츠마이스 도시 도약 첫 걸음

광주가 아시아 스포츠마이스 거점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첫 장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 (사)한국피시오(PCO)협회가 주관하는 ‘광주 희망마이스(MICE) 포럼’이 27일 ‘스포츠로 하나되는 아시아, 스포츠마이스도시 광주’를 주제로 열린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포럼은 온라인으로 중계된다. 총 3개의 주제 세션과 특별대담, 간담회 등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은 이이남 작가의 ‘미디어아트로 본 스포츠마이스도시 광주’ 퍼포먼스가 개회식과 함께 펼쳐지고 주제 세션 1에서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성공 개최 주역인 김윤석 사무총장이 ‘스포츠 MICE 도시 광주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주제토론에는 ‘스포츠

광주희망마이스포럼 개최…관광 컨벤션 스포츠 인프라 접목 25일까지 사전참가신청, 27일 온라인 중계 누구나 참여 가능

MICE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대응안’을 주제로 남성숙 대표이사(광주시관광재단), 박주희 사무총장(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배상봉 본부장(브라보앤뉴 스포츠본부), 이평형 사무처장(광주시체육회)이 패널로 참여해 스포츠마이스 도시로 나아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특별대담 순서에서는 김윤석 사무총장과 김원수 전 UN 사무차장이 ‘스포츠마이스도시 광주’ 구성에 필요한 전략과 노하우에 대해 들려줄 예정이다.

주제 세션 2부는 유명 스포츠선수들이 직접 경험한 스포츠마이스 도시에 대해 들려주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유승민 위원(IOC)의 축하 영상에 이어 기보배(양궁), 남현희(펜

싱), 조준호(유도) 등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이 스포츠마이스 도시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세션 3부에서는 ‘지역기반 K컨벤션 육성 방안’에 대해 정정숙 팀장(광주관광재단 관광진흥팀)의 주제발표와 지역 마이스업계 기관 기업들이 ‘광주지역 마이스업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자리로 마무리된다.

이번 포럼은 ‘전국희망 MICE 포럼’ 11개 지역순회 포럼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 ‘전국희망마이스포럼’ 공모사업에 광주지역에서는 (주)더킹핀의 제안이 선정돼 이뤄졌다.

행사 주관사인 더킹핀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에 스포츠와 마이스를 연결한 새로운 어젠



더가 도시발전에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돼 ‘아시아 스포츠마이스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세부계획이 수립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 중계는 전 국민 누구나 유튜브채널 광주희망마이스포럼, 광주관광TV와 희망마이스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페이스북 ‘광주희망마이스포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희중 기자